

# 이제마의 도덕 · 성명론과 사상의학적 맥락 연구

노상용 · 고 흥\*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Study on the Concepts of Lee Jema's Way · Virtue · Nature · Imperative and the Contexts betwee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ang Young No, Heung Ko\*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ersity*

This paper is written in order to investigate how Lee Je-Ma changed traditional Zhu Xi's philosophical view on Way(Tao; 道) Virtue(De; 德) Nature(Xing; 性) and Imperative(Ming; 命), which was general concepts of his contemporary age, to practical philosophy and created new medical theories of Sasang(4 symbols) science from it. Lee emphasized the true thing which is able to be done in one's living not the concepts of Sasang. So he induced the concepts of Way and Virtue from the easy and simple way(易簡之道) in the Classic of Changes(I'Ching) for the purpose of practice by anyone. Because Nature and Imperative are derived from Way and Virtue in the context logically, human life is virtual in itself, so the substance of Nature and Imperative became equal with Way and Virtue. Herein the names and concepts of original 'Sasang' were substituted to Business(事), Mind(心), Body(身), Thing(物) which is able to be directly related with human being in his daily life. And he explained variously about the responses of Mind and Body of individuals onto Business and Thing. So it could be applied in medical aspects like emotional, symptomatic, characteristic features. Conclusively man is virtual being, so Nature and Imperative in the level of Human being are based on Way and Virtue in the level of Heaven. For that reason the new concepts of Sasang Business, Mind, Body, Thing or Heaven, Human, Nature and Imperative were proposed.

Key words : Way(Tao; 道), Virtue(De; 德), Nature(Xing; 性), Imperative(Ming; 命),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 서 론

東洋思想에서 道德과 性命은 인간의 思考와 行動을 규율하는 內面的 · 本源的 原理로 중국에서는 春秋時代 以前에 이에 대한 觀念이 형성되었을 만큼 유래가 깊다. 조선 말엽 李濟馬는 인간 존재에 대한 思索를 통하여 종래의 道德概念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가하고 性命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邪惡함과 怠慢함으로 일탈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이러한 현상을 醫學的인 氣의 변화로 파악하였으며, 氣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내게 되는 運動偏差와 傾向性을 陰陽의 範疇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눔으로써 四象醫學의 理論構造를 체계

\* 교신저자 : 고 흥, 충북 제천시 신월동 산21-1,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urie99@hanmail.net, · Tel : 043-649-1813

· 접수 : 2005/07/26 · 수정 : 2005/08/24 · 채택 : 2005/09/26

화하였다.

人間の 삶은 질병을 排除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 既存의 內經醫學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크게 “風雨寒暑와 飲食居處 陰陽 喜怒”의 陰陽兩類로 나누었고 傷寒學에서는 六淫에서 원인을 찾았다. 이후 歷代 醫家들은 三因論과 痰飲 · 瘀血 · 戾氣論 등 病因 研究를 더욱 확장하였는데, 이는 治病求本과 審因論治를 중심으로 病因을 구체화하고 객관화하면서 발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病因이 客體化되고 對象化될수록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病因을 제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儒家에서는 精神的 修養을 통하여 聖人의 道를 體得하고 聖人의 境地에 다다를 수 있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는데, 醫學에서 주장하는 精神修養을 통하여 제거되지 못하는 病因과 病理理論은 儒家的 견해와는 다르다. 東武는 既存醫學의 病理理論과는 다르게 “마음에서 비롯되는 喜怒哀樂의 偏着이 病이 되는 근본이며

이것을 극복하고 純善으로 나아가는 것이 治本<sup>1)</sup>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四象醫學을 確立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李濟馬가 설정한 道德性命이 周易에서 인용되어 기술된 점이 있고 道德性命의 새로운 해석이 四象醫學으로 적용되어가는 相關性을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본 론

<東醫壽世保元 手抄本>에서 李濟馬는 四象醫學의 淵源을 “하늘은 모든 만물을 낳으시니 사물에 법칙이 있게 하셨으니, 사람의 모양은 事物이고, 사람의 本性은 法則이다.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본성으로써 事物이 있고 法則이 있으니, 하나이면서 둘이 아닌 것을 太極이라 부른다. 本性에는 本性의 쓰임이 있으니, 本性의 쓰임은 아는 것이다. 모양에는 모양의 쓰임이 있으니 모양의 쓰임은 行하는 것이다. 하나를 알고 하나를 行함은 한 번 낳고 한 번 이루는 것이니, 쉽게 간단히 서로 얻는 것을 陰陽이라 부른다. 아는 것에는 폼다 모임이 있으니, 퍼서 해결하고 모아서 깨닫는 것이다. 行하는 것에는 나아가고 물러섬이 있으니, 나아가 움직이고 물러나서 그치는 것이다. 한 번 해결했다가 한 번 깨달으며, 한 번 움직였다가 한 번 그치며, 한 번 폼다가 한 번 모임이며, 한 번 나아갔다가 한 번 물러나니, 고요함을 변화시켜 움직이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것을 四象이라 부른다.”<sup>2)</sup>라고 하였다. 이는 萬物은 하늘에서 生한 것으로 物과 則으로 構成되며 人間도 形은 物이고 性은 則이나 이는 分離될 수 있는 概念이 아니므로 太極이라고 보고, 性에는 性의 쓰임이 있는데 이를 知라 하고 形에도 그 쓰임이 있는 것을 行이라 하여 知行을 易의 易簡之道로 보아 兩儀라 했다. 이것이 발전하여 知에는 舒卷이 있고 行에는 進退가 있음을 易의 變靜動化으로 보아 四象으로 보았다. 즉 李濟馬는 周易의 太極·兩儀·四象의 概念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萬物의 次元보다는 人間 中心的으로 說明하였다. 少陰 少陽 太陰 太陽은 人間과 事物의 關係에 中點을 두고 人間을 心과 身으로 나누고 事物은 事와 物로 나누어서 四象이라 定義하였다. 그리고 <東醫壽世保元 手抄本>에서 “그침에는 4가지 뜻이 있으니 魄魂心意이고, 움직임에는 4가지 모양이 있으니 구부리고·내놓고·거두고·펴는 것이고, 깨달음에는 4가지 모양이 있으니 분변하고·생각하고·묻고·배우는 것이고, 해결하는 데는 4가지 모양이 있으니, 모양내고·말하고·보고·듣는 것이다. 의지·답력·마음·뜻은 이로움·용맹함·책략·지혜이니, 이로움·용맹함·책략·지혜는 사물의 쓰임이다. 구부리고·내놓고·거두고·펴는 것은 부지런함·잘함·지혜·정성스러움이니 부지런함·잘함·지혜·정성스러움은 몸의 쓰임이다. 분변하고·생각하고·묻고·배우는 것은 밝히고·삼가고·살피고·넓히는 것이다. 밝히고·삼가고·살피고·넓히는 것은 마음의 쓰

임이고, 모양내고·말하고·듣는 것은 용렬함·사람다움·지혜로움·책략이니, 용렬함·사람다움·지혜로움·책략은 일의 쓰임이다.”<sup>3)</sup> 라고 하여, 止動覺決에 四象이 있는 것이 事心身物의 體가 되고 그 쓰임이 事心身物의 用이 된다고 하였으며 事心身物을 四象으로 보고 體用의 나눔이 있다고 하였다.

李濟馬는 事心身物을 四象으로 보고 格致藁를 著述했고, 이를 바탕으로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했으나 東醫壽世保元에는 事心身物에 대한 用語는 없고 天人性命으로 用語가 바뀌어서 使用한다. 이에 대한 根據는 <東武遺稿>에서 “事는 곧 하늘이고, 物은 곧 사람이며, 몸은 곧 命이고 마음은 곧 性이다. 하늘은 위에 있고 사람은 아래에 있으며 몸은 왼쪽으로 향하고 마음은 오른쪽으로 향한다.”<sup>4)</sup> 라고 하여, 事와 天, 物과 人, 身과 命, 心과 性을 結付시키고 있으며 天은 上에 있고 人은 下에 있고 身은 左를 向하고 心은 右를 向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性命論에서는 天은 天機로 人은 人事로 바뀌는데 이는 자신을 中心으로 위로는 天機가 있고 아래로는 人事가 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은 天機와 人事를 받아들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性命이 되는 構造가 된다.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抄錄>에서 性의 쓰임이 知이고 形의 쓰임이 行이라 하여 周易의 易簡之道에 해당된다고 했다.<sup>5)</sup> 東醫壽世保元에서 “알고 行함이 쌓이면 道德이며 道德이 이루어지면 人性이니, 道德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알고 行하는 것이며 性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알고 行하는 것이다.”<sup>6)</sup>라 하였고 性命論에서 “하늘이 萬民을 나게 할 때에 性으로 慧覺을 주니 萬民이 사는데 慧覺이 있으면 살고 慧覺이 없으면 죽는다. 慧覺이란 것은 德이 나오는 바탕이다. 하늘이 萬民을 나게 할 때에 命으로 資業을 주니 萬民이 사는데 資業이 있으면 살고 資業이 없으면 죽는다. 資業이라는 것은 道가 나오는 바탕이다.”<sup>7)</sup>라 하여 하늘에서 性으로 慧覺을 주며 이는 德이 나오는 바탕이며 命으로 資業을 주는데 이는 道가 나오는 바탕이라고 하였다. 이를 다시 知行과 연결하고 知行이 곧 道德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周易의 太極에서 兩儀로 나누어지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性命에 대하여 中庸에서는 “하늘이 命한 것을 性이라 이르고, 性을 따름을 道라 이르고, 道를 품질해 놓음을 教라 이른다. 道란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으면 道가 아니다. 이리므로 君子는 그 보지 않는 바에도 戒愼하며 그 듣지 않는 바에도 恐懼하는 것이다. 隱보다 드러남이 없으며 微보다 나타남이 없으니, 그러므로 君子는 그 홀로를 삼가는 것이다.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情이 발하지 않는 것을 中

1) 蓋古之醫師 不知心之愛惡所欲 喜怒哀樂偏着者爲病 而但知 脾胃水穀 風寒暑濕 觸犯者 爲病

2) 天生萬物有物有則, 人形物也, 人性則也, 以人形其人性, 有物有則, 一而不二者, 謂之太極, 性有性用, 性用知也, 形有形用, 形用行也, 一知一行, 一生一成, 易簡相得者, 謂之兩儀, 知有舒卷, 舒而決, 卷而覺也, 行有進退, 進而動, 退而止也, 一決一覺, 一動一止, 一舒一卷, 一進一退, 變靜動化者, 謂之四象

3) 止有四志 魄魂心意也 動有四象 屈放收伸也 覺有四象 辨思問學也 決有四象 貌言視聽也 志膽心意 利勇謀知也 利勇謀知 物之用也 屈放收伸 動能慧誠也 動能慧誠 身之用也 辨思問學 明慎審博也 明慎審博 心之用也 貌言視聽 肅艾哲謀也 肅艾哲謀 事之用也

4) 事即天也 物即人也 身即命也 心即性也 天在上也 人在下也 身向左也 心向右也

5) 性有性用, 性用知也, 形有形用, 形用行也, 一知一行, 一生一成, 易簡相得者, 謂之兩儀.

6) 知行積則道德也 道德成則仁聖也 道德 非他知行也 性命 非他知行也

7) 天生萬民 性以慧覺 萬民之生也 有慧覺則生 無慧覺則死 慧覺者 德之所由生也 天生萬民 命以資業 萬民之生也 有資業則生 無資業則死 資業者 道之所由生也

이라 이르고, 말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和라 이르니, 中이란 것은 天下의 큰 根本이요, 和란 것은 天下의 공통된 道이다. 中과 和를 지극히 하면 天地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萬物이 잘 生育 될 것이다.<sup>8)</sup>라 하였는데, 李濟馬는 <格致彙 乾箴 下載>에서 “道라는 것은 天命의 道이니 天命의 道를 뒤라서 잠깐이라도 떨어질 수 있겠는가? 德이라는 것은 人性의 德이니 어찌 넘어지더라도 이것을 期必코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즉 李濟馬는 道와 德을 區分하여 垂直的 關係의 命과 性을 水平的 關係로 보고 있다. 이는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天生萬民 性以慧覺... 天生萬民 命以資業...”이라 하여 對等한 立場을 取하고 있다. 그리고 性은 慧覺 命은 資業으로 설명한다. 즉 하늘이 性으로써 慧覺을 주어 百姓이 生하고 하늘이 命으로써 資業을 주어 百姓이 生한다고 하였으며, “仁義禮智 忠孝友悌 등 모든 善이 다 慧覺에서 나오는 것이고...”<sup>10)</sup>라고 하여 慧覺은 精神的인 것으로 倫理道德을 의미하고, “士農工商 田宅邦國 등 모든 활동과 활용이 다 資業에서 나오는 것...”<sup>11)</sup>이라 하여 資業은 物質的인 것으로 먹고 사는 生活을 의미한다. 또한 <東醫壽世保元 手抄本>에서는 “하늘이 모든 백성을 내실 때에 性은 知行으로써 마련해 주었다. 모든 백성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知行이 있으면 살고 知行이 없으면 죽는다. 知行이란 德이 나오는 바탕이다. 하늘이 모든 백성을 내실 때에 命은 衣食으로써 마련해 주었다. 모든 백성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衣食이 있으면 살고 衣食이 없으면 죽는다. 衣食이란 道가 나오는 바탕이다.”<sup>12)</sup>이라 하여 慧覺은 知行이며, 資業을 衣食이라고 정의하였다.

李濟馬가 언급한 資業, 慧覺, 性命, 道德의 해석은 周易에서 意味를 찾을 수 있다. <周易 繫辭上傳 一章>에서 “乾이 크게 시작함을 주관하고 坤이 물건 이룸을 짓는다. 乾은 쉬움으로써 주관하고 坤은 간편함으로써 能하니 쉬우면 알기 쉽고 간편하면 따르기 쉬우며, 알기 쉬우면 親함이 있고 따르기 쉬우면 功이 있으며, 親함이 있으면 오래할 수 있고 功이 있으면 클 수 있으며,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어진 사람의 德이고, 클 수 있으면 어진 사람의 業이다.”<sup>13)</sup>이라 하였고, <乾坤>에서 易簡을 거쳐 “可久則賢人之德 可大則賢人之業”이라 하여 易簡之道와 德業과의 關係를 言及하였다. <繫辭上傳 五章>에서는 “한 번 陰하고 한 번 陽하는 것을 道라고 하니 있는 것은 善이고 이루는 것은 性이다. 어진 자가 보면 仁이라 말하며, 지혜로운 자가 보면 知라고 말하고, 백성은 날마다 쓰면서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君子가 드물다. 仁을 나타내며 擘을 감추어서 만물을 鼓動시키되 성인과 더불어 근심을 같이하지 않으니, 풍성한 德과 큰 업적이 지극하다. 富

有하게 두는 것을 큰 業績이라 말하고,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을 풍성한 德이라 말하며, 낳고 낳는 것을 易이라 말하고, 象을 이루는 것을 乾이라 말하고, 法을 본받는 것을 坤이라 말하며, 數를 극해서 오는 것을 아는 것이 積이라 하고, 變化에 통하는 것을 일이라 하며, 陰과 陽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을 神이라 한다.<sup>14)</sup>”이라 하였다. 이를 李濟馬가 주장하는 道가 資業이고 德이 慧覺이라는 것과 比較해보면 日新之라는 것은 精神的 次元이고 富有之하는 것은 物質的 次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資業은 李濟馬가 德의 相對概念으로 쓴 道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繫辭上傳 七章>에서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易이 그 지극하다. 易은 이로써 聖인이 德을 높이고 業績을 넓히는 것이니, 지혜는 높고 예절은 낮으니, 높은 것은 하늘을 본받고 낮은 것은 땅을 본받으니라 하늘과 땅이 자리를 배풀면 易이 그 가운데 行하니, 이런 성품을 보존하고 보존하는 것이 道義의 門이다.”<sup>15)</sup>이라 하여, 聖인이 德을 崇尙하고 業을 넓히는 것은 결국 乾坤의 易簡之道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 하였다. <乾卦 九三>에서는 “君子가 德에 나아가며 業을 닦으니 충성되고 미덥게 함이 德에 나아가는 바요, 말을 닦고 그 정성을 세움에 業에 거하는 바라.”<sup>16)</sup>라 하여 君子는 聖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므로 進德脩業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李濟馬는 <格致彙>에서 “忠信으로는 眞德을 다할 수 없으며 立誠하였다 해도 아직 修辭를 완전히 하지는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sup>17)</sup>라 하였다.

따라서 李濟馬는 道를 儒家의 입장에서 道家의 形而上學의 道보다는 德治를 最高의 政治原理로 하는 道, 즉 實踐하는 實踐論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德은 倫理的 知識의이라는 意味의 慧覺과 聯關이 있고, 道는 實際로 살아가는데 必要한 모든 것인 資業으로 볼 수 있다.

<格致彙 乾箴 下載>에서 “道라는 것은 天命의 道이니... 德이라는 것은 人性의 德이니...<sup>18)</sup>”이라 하여 道라는 것은 天命과 連結되고 德이라는 것은 人性과 連結되고 하였다. 그리고 <格致彙 乾箴 下載>에서 “감(往)에는 반드시 슬픔이 있고 來(來)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있으며 임(臨)함에는 반드시 노여움이 있고 審(立)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 喜怒哀樂은 人性이고 가고 오고 서고 임하는 것은 天命이다.”<sup>19)</sup>라 하여 天命과 人性을 정의하였다. 天命을 往來立臨이라 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行動을 말하는 것으로 확대하면 萬物에 共通的으로 賦與된 것이라 생각된다. 즉 삶을 營爲하기 위해서 하는 行動의 總稱이 天命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喜怒哀樂을 人性이라고 한 것은 人間이 萬物을 對하면서 느끼는 感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天

8)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是故 君子 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 慎其獨也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9) 道也者 天命之道也 天命之道 孰可須臾離於斯乎 德也者 人性之德也 人性之德 何不顯必於是乎

10) 仁義禮智 忠孝友悌 諸般百善 皆出於慧覺

11) 士農工商 田宅邦國 諸般百用 皆出於資業

12) 天生萬民, 性以知行, 萬民之生也. 有知行則生, 無知行則死. 知行者德之所由生也. 天生萬民, 命以衣食, 萬民之生也. 有衣食則生, 無衣食則死. 衣食者道之所有生也.

13) 乾知大始 坤作成物 乾以易知 坤以簡能 易則易知 簡則易從 易知則有親 易從則有功 有親則可久 有功則可大 可久則賢人之德 可大則賢人之業

14)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仁者見之謂之仁 知者見之謂之知 百姓日用而不知 故君子之道鮮矣 顯諸仁 藏諸用 鼓萬物而不與聖人同憂 盛德大業 至矣哉 富有之謂大業 日新之謂盛德 生生之謂易 成象之謂乾 效法之謂坤 極數知來之謂占 通變之謂事 陰陽不測之謂神

15) 子曰易其至矣乎 夫易 聖人所以崇德而廣業也 知崇禮卑 崇效天 卑法地 天地設位 而易行乎其中矣 成性存存 道義之門

16) 君子終日乾乾夕惕若厲无咎 何謂也 子曰君子進德脩業 忠信 所以進德也 脩辭立其誠 所以居業也

17) 忠信未盡於進德, 立誠未全於修辭故也

18) 道也者 天命之道也... 德也者 人性之德也

19) 往必有哀 來必有樂 臨必有怒 立必有喜 喜怒哀樂 人性也 往來立臨 天命也

命은 모든 萬物이 살아가는 方式 自體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周易에서 말하는 “낳고 낳는 것을 易<sup>20)</sup>” “하늘과 땅의 큰 德이 낳는 것<sup>21)</sup>”이라는 意味와 유사하다. 그리고 人性은 喜怒哀樂이라고 했는데, 이는 삶을 營爲해 나가면서 個體的으로 느끼는 感情을 의미하며 複雜한 感情의 變化라기 보다는 好惡의 感情이다. 好惡의 感情으로 보는 이유는 <東醫壽世保元 擴充論>에서 “性은 聽視嗅味라고 하고 情이 喜怒哀樂이라<sup>22)</sup>”고 하였다.

<格致藁 乾箴>에서 “천명으로써 人性을 발현(授)하게 하는 것은 하늘이 命한 性이고 人性으로써 天命에 따르는 것은 性を 따르는 道이다. 喜怒哀樂이 아직 發하지 않은 것이라 致知와 慎獨을 말함이며 致知와 慎獨이란 戒慎하고 恐懼하는 것인데 致知와 慎獨을 쉬지 않고 오래 계속하는 것이 곧 修道하는 教이다.”<sup>23)</sup> 라 하여 李濟馬는 實踐論을 나름대로 解釋을 하면서 道와 教를 定意하고 있다. 그리고 天命을 이미 있는 命과 아직 있지 않은 命으로 人性을 이미 發해한 것과 發하지 않은 것으로 區分하여 自己의 獨特한 思想을 전개하였다.

<格致藁 乾箴>에서 “이미 往來立臨의 命이 있다면 또한 자연히 不往來와 不立臨의 命도 있을 것이며 이미 喜怒哀樂이 發하고 난 뒤의 性이 있다면 또한 자연히 喜怒哀樂이 아직 發하기 전의 性도 있게 된다. 不往來와 不立臨의 命은 어찌 홀로 거처할 때의 命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홀로 있을 때의 性이라면 그 무엇이 戒慎하고 恐懼하면서, 점차 中을 쓰는 것만 같겠는가? 그러므로 喜怒哀樂은 오고 가며 서고 임하는 사이에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接應하는 性이므로 여기에 節과 不節이 있는 것이라면 戒慎恐懼는 往來하거나 臨立하지 않는 때에 자신이 홀로 가지고 있는 性이므로 여기에는 中과 不中이 있게 되는 것이다.”<sup>24)</sup> 하였는데, 喜怒哀樂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來往立臨하는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므로 節과 不節이 있고, 戒慎恐懼는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自己의 獨特한 性이니 中과 不中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의 獨特之性을 안에서 다하면 相對方과의 相接之性도 밖에서 다하게 되는 것이 “性之德”이고 “時措之宜”라고 했다<sup>25)</sup>.

그리고 喜怒哀樂의 已發而節과 未發而中하기 위해 先行되는 條件으로 언급한 것은 知天和 知人이다<sup>26)</sup>. 즉 <格致藁 乾箴>에서 “天下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의 善한 性を 洞徹하게 안 뒤에야 喜怒哀樂의 感情이 이미 발하고 나서도 節度에 맞게 되며 天下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의 惡한 慾을 洞徹하게 안 뒤

에야 喜怒哀樂의 感情이 아직 발하지 않았을 때에도 中을 지킬 수가 있다.”<sup>27)</sup>라 하여 知天이 天下人心의 善性を 아는 것이고, 知人이 天下人心의 惡慾을 아는 것이라 하였다.

상기의 내용을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內(自己獨得之性)	外(與人相接之性)
命	不來往不立臨之命	來往立臨之命
性	喜怒哀樂未發之性	喜怒哀樂已發之性
修養方法	戒慎恐懼(慎獨致知)	修身行世
修行結果	中 · 不中	節 · 不節
修行條件	知人 洞知天下人心之惡慾	知天 洞知天下人心之善性

圖表를 보면 性과 命이 垂直的 關係가 되어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 같이 보이나 結論的으로 보면 사람의 善性和 惡慾을 안다는 次元에서는 水平的 關係의 性命觀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李濟馬는 性命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남의 善을 좋아하고 나 역시 善하게 할 줄 아는 것은 至誠의 德이며 남의 惡을 미워하고 내가 반드시 惡을 행하지 않는 것은 正命의 道이다.”<sup>28)</sup>라 하였다. 따라서 李濟馬는 道德과 性命은 하나의 개념으로 보았으며 이는 知行으로 연결시켰다. 道德이나 性命 그리고 知行의 개념으로 資業, 慧覺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周易에서 인용된 문장으로 추측할 수 있다.

李濟馬는 다시 道德性命의 개념을 신체와 결부하여 四象醫學을 만드는데, 性命論에서 天機 人事, 頤臆膈腹, 頭肩腰腎을 天機, 人事, 知, 行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한다. <性命論>에서 “天機에 넷이 있는데 첫째는 地方이고 둘째는 人倫이고 셋째는 歲會이고 넷째는 天時이다. 人事에 넷이 있는데 첫째는 居處이고 둘째는 黨與이고 셋째는 交遇이고 넷째는 事務이다. 귀로 天時를 들으며 눈으로 歲會를 보며 코로 人倫을 냄새 맡고 입으로 地方을 맛본다. 肺는 事務를 수행하며 脾는 交遇를 맺게 하며 肝은 黨與를 형성하며 腎은 居處를 정한다. 턱에는 籌策이 있고 가슴에는 經綸이 있고 배꼽에는 行檢이 있고 배에는 度量이 있다. 머리에는 識見이 있고 어깨에는 威儀가 있고 허리에는 材幹이 있고 엉덩이에는 方略이 있다. 귀와 눈과 코와 입은 天機를 인식하는 것이고 肺와 脾와 肝과 腎은 人事를 수행하는 것이고 턱과 가슴과 배꼽과 배는 知를 주관하는 것이며 머리와 어깨와 허리와 엉덩이는 行을 주관하는 것이다.”<sup>29)</sup>라 하여 天機는 耳目鼻口에서 받아들여므로 天의 要素가 되고, 人事는 肺脾肝腎에서 수행하므로 人的 要素가 되고, 頤臆膈腹에 있는 籌策 經綸 行檢 度量은

20) 生生之謂易

21) 天地之大德曰生

22) 太陽人... 哀性 非他 聽也... 怒情 非他 怒也 少陽人... 喜性 非他 觀也... 哀情 非他 哀也 太陰人... 喜性 非他 嗅也... 樂情 非他 樂也 少陰人... 樂性 非他 味也... 喜情 非他 喜也

23) 以天命而授人性者 天命之性也 以人性而順天命者 率性之道也 喜怒哀樂之未發 卽致知慎獨也 致知慎獨 卽戒慎恐懼也 致知慎獨 不息而久 則修道之教也

24) 既有來往立臨之命 則亦自有不來往不立臨之命也 既有喜怒哀樂已發之性 則亦自有喜怒哀樂未發之性也 不來往不立臨之命 豈非處獨之命乎 獨之所性 孰如戒慎恐懼漸次以中乎 是故 喜怒哀樂者 來往立臨之間 與人相接之性 而有節不節也 戒慎恐懼者 不來往不立臨時 自己獨得之性 而有中不中也

25) 自己獨得之性 盡於內則 與人相接之性 盡於外也 性之德也 合內外之道也 時措之宜也

26) 知天然後 喜怒哀樂 已發而節也 知人然後 喜怒哀樂 未發而中也

27) 洞知天下人心之善性然後 喜怒哀樂 已發而節也 洞知天下人心之惡慾然後 喜怒哀樂 未發而中也

28) 好人之善而我亦知善者 至性之德也 惡人之惡而我必不行惡者 正命之道也

29) 天機有四 一曰 地方 二曰 人倫 三曰 世會 四曰 天時 人事 有四 一曰 居處 二曰 黨與 三曰 交遇 四曰 事務 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 肺達事務 脾合交遇 肝立黨與 腎定居處 頤有籌策 臆有經綸 膈有行檢 腹有度量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腎有方略 耳目鼻口 觀於天也 肺脾肝腎 立於人也 頤臆膈腹 行其知也 頭肩腰腎 行其行也

30) 天時 大同也 事務 各立也 世會 大同也 交遇 各立也 人倫 大同也 黨與 各立也 地方 大同也 居處 各立也 籌策 博通也 識見 獨行也 經綸 博通也 威儀 獨行也 行檢 博通也 材幹 獨行也 度量 博通也 方略 獨行也 大同者 天也 各立者 人也 博通者 性也 獨行者 命也

로 知를 行하고, 頭肩腰臀에 있는 識見 威儀 材幹 方略으로 行을 行한다고 하였다. 또한 知行과 性命의 關係에 대해서는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天時は 大同한 것이고 事務는 各立한 것이요 世會는 大同한 것이고 交遇는 各立한 것이요 人倫은 大同한 것이고 黨與는 各立한 것이요 地方은 大同한 것이고 居處는 各立한 것이다. 籌策은 널리 통하는 것이고(博通) 識見은 홀로 행하는 것(獨行)이요 經綸은 널리 통하는 것이고 威儀는 홀로 행하는 것이요 行檢은 널리 통하는 것이고 材幹은 홀로 행하는 것이요 度量은 널리 통하는 것이고 方略은 홀로 행하는 것이다. 大同한 것은 天이고 各立한 것은 人이며 널리 통하는 것은 性이고 홀로 행하는 것은 命이다.”<sup>30)</sup>라 하여, 知가 곧 性이며 行이 곧 命으로 歸結시킨다.

따라서 李濟馬는 道德性命을 知行으로 귀결시키고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를 인지하는 耳目口鼻의 작용을 통하여 天機를 알 수 있으며 形態의인 肺脾肝腎에 人性인 喜怒哀樂을 배속하였다. 그리고 耳目口鼻를 통해서 인식되는 天機가 肺脾肝腎에 배속된 喜怒哀樂과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은 知行인데 知는 籌策, 經綸, 行檢, 度量이며 行은 識見, 威儀 材幹, 方略으로 知行의 양상은 頭肩腰臀, 頤臆臍腹에서 형태적인 특징이나 기능상의 변동으로 반영된다고 결부시켰다.

## 결론

李濟馬의 道德·性命論과 四象醫學的 脈絡의 연관성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李濟馬가 말하는 道德이라는 概念은 周易의 易簡之道를 바탕으로 두고 있으므로 儒敎의 思想을 根據로 하고 있다. 둘째, 道德에서 性命이 나오며 性命은 自體가 곧 道德이라 하여 李濟馬는 인간을 道德的 存在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李濟馬가 말하는 四象은 周易의 四象의 意味를 가지고는 있으나 人間 中心

的으로 보아 事心身物을 四象으로 보았다. 넷째, 事心身物이 性命論의 天人性命의 概念으로 바뀌며, 이는 人間(性命)이 事物(天人)을 對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自體를 表現한다. 즉 性命이란 人間이 人間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人間이 人間답게 살아가는 것이 性命이라면, 이는 곧 知行이 되는 것이므로 性命은 知行과 동일한 의미이다.

## 참고문헌

1. 사상의학,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편, 집문당, pp 83, 94-95, 337-341, 346-347, 1997.
2. 한방병리학, 전국한의대병리학교실편, 일지사, pp 12-14, 20, 2002.
3. 李濟馬 原著 金達來 編譯, 東醫壽世保元 草藁, 鼎談, 서울, pp 3, 22-24, 1999.
4. 李濟馬 原著 이창일 역주, 東武遺稿, 청계, 성남, pp 90-91, 1999.
5. 成百曉 譯註, 大學·中庸集註, 전통문화연구회, 서울, pp 59-61, 1997.
6. 李濟馬 原著 池圭鎔 譯解, 東武 格致藁譯解, 永林社, 서울, pp 34, 219-225, 2001.
7. 金碩鎭 譯解, 周易傳義大全譯解, 대유학당, 서울, pp 195-196, 1344-1345, 1363-1371, 1376-1377, 1996.
8. 成百曉 譯註, 孟子集註, 전통문화연구회, 서울, 1997.
9. 成百曉 譯註,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서울, 1997.
10. 朴永浩 역·지, 莊子, 두레, 서울, 1999.
11. 남만성·김상일 譯解, 四書五經 左氏傳, 삼성문화사, 대구, 1982.
12. 이상욱 譯解, 管子, 명문당, 서울, 1985.
13. 馮契主編 哲學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上海, p 1042, 1052, 1598, 1992.
14. 韓國東洋哲學會 編, 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性論,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울, pp 192-220, 1982.